코로나 시대의 변화되고 있는 선교동원의 특성-미주한인교회 범위안에서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mission mobilization in the era of Corona- Within the scope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Dr. 김정한선교사  
 SON Ministries/GMAN

1. 선교동원의 변화된 정의

선교동원의 정의

선교동원이란 지리적 경계 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도록 선교 도전하고 헌신하게 하여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도록 하는 사역을 말한다. 제이 메텐가(Jay Metenga)와 맬컴 골드(Malcolm Gold)는 좀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3 가지 포인트를 통하여 선교동원 을 설명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 일어나 움직이고 성장하는 것, 둘째로 그들이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찾는것, 셋째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으로 선교동원을 정의한다(2016:74-75)[[1]](#footnote-1) 이것이 선교동원 패러다임이다. 선교는 시대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21 세기 현대 세계선교의 큰 흐름은 세계화(Globalization) 패러다임이다. 서구교회 주도의 선교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비서구교회의 선교 대중화와 인터넷이란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들어섰다. 반면 세계화가 가속화되어가지만 이와 동시에 갈수록 선교 제한 접근지역이 확대가 되면서 목사 안수받은 선교사가 입국을 하기가 어려운 선교대상 지역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선교패러다임은 세계화된 시대와 선교지 접근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방법을 세우고 이에 따른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 선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선교접근지역에 합법적으로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주체로 기여할 수 있는 평신도전문인 선교사들을 동원하기 위한 미디어와 온라인을 통한 평신도선교동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기에 와 있다.

선교동원에 관한 선교학자들의 찰스 벤 엔겐의 관점과 이론

찰스 벤 엔겐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강조한다. 그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며 세상을 향한 선교의 사명이 있고 4 가지의 본질인 통일성, 사도성, 성결성, 보편성인데 지역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한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졌다고 말한다(1999:88)[[2]](#footnote-2).   
벤 엔겐은 지역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로 규정한다. 지역교회를 새로운 관점으로 조망한다. 현대 교회론보다 성경에 나타난 지역교회의 모습을 재연한다. 역사적 관점에 나타난 지역교회의 참모습을 서술한다(2014:97)[[3]](#footnote-3). 벤 엔겐은 지역교회의 선교적 의도를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회는 오순절과 재림 사이에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운동이다. 특정 역사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활동, 세상 속에서 변하고 있는 교회의 위치와 특성 등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개념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도록 종용한다”(2014:122-123).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세상을 위한 존재’는 교회의 사도성과 관련되는 교회의 ‘보내심을 받음’에 대한 표현이다. 예수님께서 자기 주위로 제자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다. 제자도는 항상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제자도이다”(2014:126). 교회의 존재 목적을 규정하는 성경적 용어가 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적 용어를 살펴보자. 네가지 단어는 코이노니아(koinonia), 케리그마(kerygma), 디아코니아(diakonia), 말투리아 (martyria)이다. 선교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안에 있는 지역교회에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말투리아를 실천하는 사역에 동참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2014:148).

하나님 나라와 지역교회는 상관관계를 가진다. 하나님 나라는 현존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도래할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이나 제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이다. 복음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다. (2014:185) 예수님은 리더십을 섬기는 종의 개념으로 설명하셨다.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는 낮은 지도자들을 섬겨 그들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교한다. 여기서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섬김의 대상이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섬기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섬긴다. (2014:285) 벤 엔겐은 선교를 수행하는 주체를 평신도로 범위를 넓힌다. 그는 평신도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백성(헬라어로 “라오스”)이라고 규정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교 활동에 참여하는 일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특권과 권세에서는 구별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 구성원 중 일반적으로 10 퍼센트 정도가 교회의 중심으로 움직이고 활동을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나머지 90 퍼센트의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필자가 평신도 전문인들을 선교에 참여하게 하고 동원하는 연구를 할 때 일반 교회의 현실 속에서 평신도전문인 선교사 동원을 하는데 중요한 개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에서 흩어져 세상으로 나갈 사람들이 90 퍼센트의 평신도전문인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평신도전문인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이제 선교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과 열정을 가진 선교 행정에 대한 우리의 역할은 물을 주는 일, 거름을 주는 일, 잡초를 뽑아주는 일, 열매를 잘 맺도록 가지를 쳐 주는 일, 그리고 장미를 다듬어 주는 일이다. (2014:328)

랄프 윈터 관점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탁월한 북미주 선교동원가였다. 그는 기독교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펙티브스를 서술한다. 그는 기독교 선교를 기독교 문명운동으로 이해한다(2013:296).[[4]](#footnote-4) 윈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기술한다. 그는 기독교 문명사를 구속사, 창조, 지상명령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우리에게는 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텍티브가 필요하다. 거시적 이야기속에는 여러 가지 작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지만, 그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나무로 숲을 말할 수 없듯이, 작은 일화들만으로 거대한 이야기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구속사, 즉 거대한 이야기가 중요하다. (2013:42) 윈터는 세계 제 2 차대전 이후 비서구교회에서 서구 선교사들이 철수한 후, 비서구교회들에 폭발적인 교회성장과 선교동원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열강들이 식민지에서 퇴각한 이후의 사반세기 동안, 서양인들은 기독교 구 식민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다만 그들은 기독교가 과연 식민지 나라들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일 뿐이었다. 기독교는 구식민지 국가 안에서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성장했다. (2012:18)[[5]](#footnote-5) 윈터의 비서구 선교 운동사에 따르면, 비서구교회들은 성장했다. 비서구교회 가운데 놀라운 선교동원이 일어났다. 가장 암울한 상황에서 놀라운 선교역량이 폭발했다. 먼저 ‘비서구 선교 운동사’는 지난 1,500년 역사 가운데 역사적 전환점으로작용한 전조적 사건들이 가득하다. 이 시대 전반을 통해 일어난 세계적인 기독교 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모든 면에서 암울한 상황에서 깜짝 놀랄만한 긍정적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 기간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기성 교회가 점점 무기력 해지면서, 부도덕과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럼에도 기독교 운동은 역사상 가장 탁월한 모습을 드러냈다. (2012:14) 윈터는 소달리티 조직을 강조한다. 선교조직체가 구속적 선교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활발한 선교운동, 선교동원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회 조직체와 선교조직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가 서구적 형식을 띠든 아시아적 형태를 띠든지 간에 기독교 선교운동을 수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조직체가 함께 움직여야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를 하는 두 조직체가 기독교 수 세기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이 두 조직체가 온전히, 그리고 적절하게 인정되며,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활용될 때에만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선교적 노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2012:247)선교동원을 위한 두 조직체는 상호조화를 이루며 동역해야 한다. 윈터는 강조한다. “역사적 패턴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모달리티 조직체 이외에, 때로는모달리티 조직체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사용해 오셨다. 두 조직체는 모두 정당한 하나님의 기관이다. 선교적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조화를 이루며 동역해야 한다”(2012:282-283). 윈터는 문명운동을 위한 선교동원을 기독교 문명운동사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중세시대의 개신교의 선교 확장에 대하여 기독교 문명의 확장이라는 다른 측면의 관점을 가지고 선교 확장을 이해한다. 그는 1600 년부터 2000 년 사이에 선교 주자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갔으며 1500 년부터 1800 년까지 가톨릭 선교의 독무대였음을 말한다. 그 당시 프랑스혁명으로 인하여 가톨릭의 세계선교를 지원하던 재정이 바닥이 나서 개신교 선교의 시작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이때 대영제국의 탄생으로 동인도회사가시작하였다(2013:231). 당시 동인도회사는 선교사들이 회사의 상업적인 이윤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므로 해외 선교를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였다고 말한다. 랄프 윈터의 서구의 식민주의에 대한 견해는 서구인들이 원래부터 해외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구인들이 비서구권에 가는 목적은 단순히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선교 였다고한다 (2013:232). 랄프 윈터는 서구식민주의 정책에 의해 서구교회의 선교 확장이 된 것이 아니고 식민주의와 관계없이 선교의 동원이 되고 확장이 되었다고 말한다. 랄프 윈터의 해석을 통해 볼 때 서구교회의 확장은 선교동원을 위한 서구 문명과 식민지시대의 확장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서구교회는 국가의 식민주의 정책에 편승하여 선교사가 파송되고 동원이 되었다는 해석이 그동안 주된 해석이었지만, 랄프 윈터는선교동원은 서구의 식민지 정책으로 확장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본인의 관점은 랄프 윈터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서구교회가 선교동원이 일어나야 하는 시대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구 제국주의가 확장되어가며 선교동원을 위한 도구가 되는 일정 부분의 역할과 기능이 있었다고 해석을 한다. 서구식민주의 확장은 선교 동원이 일어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현상이었다고 재해석 할 수 있다.

폴 피어슨 관점

폴 피어슨(Paul E. Pierson)은 선교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선교운동사를 제시하였다. 기독교 선교운동사에 나타난 선교학적 원리들을 기술하였는데, 선교학적 관점을 핵심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교학적 관점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역사를 선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선교운동의 역학관계를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다. 극한 위험을 감내하며 지역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의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은 무엇이었는가? 어떤 신앙 운동이 선교운동을 태동시켰는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선교구조와 조직은 어떤것이었는가? 선교운동을 주도했던 리더들이 가졌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선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속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였는가? (2009:16-17)[[6]](#footnote-6) 피어슨의 선교운동사관은 역사를 보는 하나의 틀이다.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선교학적 관점이다. 피어슨의 9 가지 선교학적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2009:17-19).  
1. 변두리 이론이다.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그 시대 교회 권력 구조의 변두리에서 시작된다.  
2. 두 조직체 이론이다. 두 조직체는 교회조직과 소달리티라 부르는 선교단체조직을 말한다.  
3. 핵심인물 이론이다. 모든 선교운동은 핵심인물이 발기하였다.4. 새로운 리더십 개발이론이다.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의 특징은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고 훈련하는 새로운 리더십 개발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5. 새로운 신앙 생활양식 이론이다. 부흥과 확장은 대부분 새로운 신앙 생활 양식을 수반한다.6. 새로운 신학적 돌파 이론이다. 부흥운동과 선교운동은 새로운 신학적 돌파를 동반한다.  
7. 부흥과 확장이론이다. 교회의 부흥과 확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8. 역사/상황적 조건이론이다. 교회 부흥과 확장은 역사적/상황적 조건이 맞을 때일어난다.9. 정보확산 이론이다. 선교 정보의 확산은 선교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피어슨은 선교운동사를 다루면서 핵심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에 전개된 선교운동의 역학을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배운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강조한다. 우리는 역사를 연구하면서 독특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강조한다. 평생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부탁한다. 복음이 왜다른 곳으로 전해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 사는 특정 인간집단에게 전해졌는가? 복음전달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였는가?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인간집단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복음에 적대적이었는가? 아니면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을 지나치고 말았는가? 이런 질문은 선교학적 질문이다.

이것이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는 선교운동사의 연구방법이다. (2009:31)피어슨은 이 시대를 선교동원에 창의적인 시대라고 주장한다.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을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선교운동의 역사 가운데 가장 창의적 이며 효과적인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고 확신한다. 선교적인 필요와 도전도 크다. 하지만 선교적인 기회들 또한 크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계속 따라야 한다. 윌리엄 캐리와 함께 고백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기때문에 소리친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 2009:724) 선교동원과 선교 확장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피어슨은 중세 서구교회의 선교 확장에 대한 원인을 말하기를 유럽의 영향력이 1000 년 동안 이어오던 이슬람의 강한 군사력과 문화를 넘어서는 결과였다고 말한다. 유럽인들의 기술과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방향으로 바뀌 었다고 말한다(2009:349). 그러나 폴 피어슨은 서구의 선교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를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동일시하여 유럽인은 기독교인이며 피선교지의 사람들은 유럽식의 옷과 유럽식의 문화와 유럽식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지적한다(2009:350). 중세 이후의 기독교는 유럽의 문화와 함께 전해졌고 교회의 선교동원은 막강한 군사력, 정치력, 문화를 통해 함께 가는 선교동원의 형식이 되었다. 유럽 선교사들이 강한문화를 가지고 힘없고 약한 나라로 가서 왜곡된 복음을 전한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선교의형태는 선교동원이 일어나도 잘못된 기독교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보게 된다. 피어슨은 강자의 복음이 약자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가를 질문한다. 그러나나의 질문은 잘못된 선교의 방향이 있을 때 선교동원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가진다. 피어슨의 주된 관점은 유럽의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가 기독교 확장의 원인 중하나라고 보았다. 선교동원은 교회 활동에서 기본이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유럽교회가 하지 않을 때 일반 사회의 문화확장이라는 형태로 기독교가 확장이 되면서 그 밑그림에는 선교동원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폴 피어슨의 주장을 통해, 선교동원은 기독교와 상관없이 일반 문화의 영향력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 구약에 나타난 선교동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기술함에 있어서 성경적 근거를 중점적으로 찾아볼 것이다. 먼저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보고 이어서 역사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시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그리고 예언서에 나타난 선교동원을 살펴보겠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혼자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선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시면서 선교동원에 얼마나 비중을 두시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보아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동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중하게 선교동원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선교동원의 관점으로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교의 확장을 위하여 선택하고 동원하신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선교의 시작은 동원의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전략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선교동원이다.

역사서의 선교동원

역사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더욱 다양성을 보여준다.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속에는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목적은 이방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기 위한 목적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동원하시는 기록들을 볼 수 있다. 역사서의 한예로 하나님은 남여구별없이 동원하신다.   
김신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성과 여성은 창조질서에서 서로 동등하며 상호보충적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2015:478)[[7]](#footnote-7).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소녀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입장에서 선교를 위해 동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시가서에도 선교적 주제가 있다. 시가서는 문학 형식으로 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섯 권의 성경을 의미한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 하나님에대한 신앙을 설명하며 주변 나라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빠져있는 것에 대한 잘못을 말하고 있다. 시가서의 중심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이방인들에게 선교해야 하는 당위성을 문학적 표현으로 말하며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선교에 동원하는 내용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택하셨다. 시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선교에 동원하시기로 하셨다.

선지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정치와 국제적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역사적 사건들 속에 선교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종들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역사적 사건들에서부름을 받고 선교에 동원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예로 이사야, 다니엘과 세 친구그리고 요나를 선교에 동원하시는 사실을 알수 있다.

하나님은 동원된 종들을 선교대상 지역에 보내시는 것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이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지금처럼 선교사를 동원하여 파송하는 교단이나 선교회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직접 종들을 동원하시고 선교지로 파송하는 형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에 동원된 사람들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들이 선교사역에 동원된 사실을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두신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이은무는 권력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동원에 대한 예를 다니엘에 대한 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니엘은 선지자(선교사)요 정치가였다. 그이 포지션에서 그는 권력자들(다리오 왕을 만났고, 어떻게 보면 다리오는 선교적 동역자가 되어 다리오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전하는 좋은 파트너쉽을 만들어 냈다. 저변층(grassroots)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저들을 통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수준 있는 이들과 만날 수만 있다면 저들의 저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십분 이용할 수 있다. 다니엘은 다리오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다. (2009:290)[[8]](#footnote-8)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동원은 특별한 목표를 두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구약에서는 다니엘의 동원에 대한 예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실 때 언제나 자신을 계시 하시는 특징이 있다(슈미트 1989:87)[[9]](#footnote-9)슈미트, 워너 H.(Schmidt, Werner H.)1989 (역사로 본) 구약신앙(Faith of the Old Testament). 강성열 역. 서울: 나눔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인간은 자신에게 누가말씀하시는가를 먼저 알아야 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인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은 한번 정하신 선교동원의 대상은 초자연적인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동원대상인 종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선교지로 보내심으로서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선교동원 - 복음서에 나타난 선교동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 하실 때 자기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 예수님 자신은 보냄을 받고 왔다고 하셨고(마 10:40), 마태는 그 보내심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이라고 계보를 설명한다. 보냄을 받으신예수님은 선교사로 이스라엘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용조는 아브라함과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약속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기 위한표현이었다 라고 말한다.(1990:13)[[10]](#footnote-10)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그 오심은 선교사로의 신분도 겸하여 오시었다. 성육신의 의미는 인간 세상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오심은 선교사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들이 되기 위한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아들과 성령 안에서 자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으며, 신적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성을입으시고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선교적 교회가 배우고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성육신의 원리이자 자세다”(2015:21)[[11]](#footnote-11) 홍기영 2015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197-2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홍기영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라고 한다.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종들을 선교사로서 동원하신 근거를 보았지만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선교를감당하게 되심을 볼 수 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선교동원의 특징 중 하나는예수님은 제도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모델을 보여주셨다. 인간들의 느끼는 필요(Felt Needs)를 채워주시고 해결하시며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참여하도록 선교동원을 하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선교동원 측면에서의 관찰이다. 그러므로 복음서는 선교동원의 교과서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말씀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는 말씀은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냄을 받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제자들을보내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눅 4:43)라며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기에 이 일을 위해 자신의 선교사역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셨다. 그래서 동역에 합당한 사람들을 동원하시게 된다. 이렇게 선교에 동참할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이예수님이 하신 첫 선교동원이 된다.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신 후 사역을 통해 나타난 결과는 복음을 전할 사역자들에대한 선교동원이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복음이었지만 그 메시지는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사명을 받고 선교동원에 부름받은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를주신 것이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선교사로 동원이 되고 선교사로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갖는 동시에 그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며 그들을 세계선교에동원하는 선교동원 사역도 감당하게 된다. 예수님의 전도는 동시에 선교동원의 목적이 함께 수반이 되었다. 예수님의 전도에 대한 이중적인 목적은 개인의 회심과 동시에 그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동원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 사역을 선교동원면에서 관찰한다면 예수님은 첫째로 개인 관계를 시작하여 그의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둘째로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 중심적이었고, 셋째로 영적 전쟁의 실예를 보여주시며 그 사역현장에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자로, 선교사로 동원하시는 것을 볼수 있다. 넷째로 예수님의 선교동원 목적 중 하나는 가르침이었는데,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의 일차적 수행자로서 제자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루츠 2002:63루츠, 울리히(Luz, Ulrich)[[12]](#footnote-12)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선교사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원칙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한복판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를 보여주신 대표적인 성경본문이다”(방동섭 2010:238)[[13]](#footnote-13) 라고 산상수훈이 가지는 선교사 삶의 원칙을 가르쳐주신다. 또한 예수님의 선교동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회개 메시지”는 다윗왕국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선포가 큰 충격이었다(1997:41)[[14]](#footnote-14)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며선교동원이 되었다.예수님의 선교동원의 대상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도하였다. 예수님의 소외되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들은 선교동원의범위에 있어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모음은 율법에 의한 종교적 제약속에서 저항된 바리새적이거나 에쎄네적인 운동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소외당하는 자들을 위해 열려 있는 운동이다”(김옥순 2010:288)[[15]](#footnote-15) 따라서 선교동원의 대상을 폭넓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다.

2. 선교동원의 변화된 교회의 우선목표 5가지 - 사람인가? 재정인가”

1). 선교지도력: 선교지도력은 교회와 성도들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선교 영향력을 말한다.

2). 선교공감력: 선교공감력은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설교, 선교보고, 선교초청 등 현지 선교 소식을 전할 때 성도들이 직접 들으며 선교에 대한 소망과 의욕, 관심과 공감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선교동원력: 선교동원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동기를 부여하여 선교에 헌신케할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지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4). 선교재생산력: 선교재생산력은 교회의 선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성도들이지속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며 다른 교회가 선교동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영향을주는 능력을 말한다.  
  
5). 선교재정헌신력: 선교재정헌신력은 교회가 선교에 더욱 참여 할 수 있는 예산을 위해성도들의 재정헌신력을 의미하며 또한 성도들의 선교를 위한 재정헌신을 측정하는 것이다.

3. 선교동원의 변화된 주체 - 선교사? 지역교회? 선교단체?

1). 중소형교회: 북미주한인교회들 안에 성도의 수가 200 명 이하의 교회를 중소형교회라고 정의하였고 중형과 소형교회의 합성어이다.

2). 연합선교교회: 연합선교교회라 함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두지 않고 교회의  
선교적 성장에 초점을 둔 교회로써 교회의 크기는 중소형교회 범주 안에 들지만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여 교회의 선교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회를 말한다.

3). 강소형선교교회: 강소형선교교회는 교회의 크기가 중소형교회이지만 선교에 초점을  
두고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선교를 하는 교회를 말한다.  
  
4. 선교동원의 변화된 대상세대 – 황금기선교사

1). 평신도선교사: 평신도라는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라오스’(λαος, laos)(이현정2010:29)[[16]](#footnote-16)라는 단어에서 시작된다. 헬라어로 “라오스”는 베드로전서 2 장 9-10 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백성을 의미한다. 평신도선교사는 안수를 받지 않은 성도가 해외 선교를 하는사람을 말한다.

2). 전문인선교사: 전문인선교사는 세상의 직업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의 기회를 가진 자들로서 헌신 되고 훈련된 체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자신의 세상의 직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다(김성욱 2010:22).[[17]](#footnote-17) 전문인은 숙련가를 뛰어넘어 자신의 분야에 대한 통찰력과 모험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이수환 2009:24). [[18]](#footnote-18)

3). 황금기선교사: 황금기선교사는 은퇴한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은인생 기간에 선교지에 파송을 받거나, 또는 해외 선교에 관여된 선교기관에서 헌신하여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선교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북미주 한인교회 초기 기초를 놓은 선교동원 개척자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는 한인 이민 사회가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한인교회들이 개척이 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 한인교회들이 선교에 동원이 되도록기여를 한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교사의 경험은 없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목회의 방향은 분명하였다. 이들이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에 기초를만들었다. 그들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장양춘 목사 등 이다. 북미주한인교회 목회자 선교동원가는 해외 선교운동에 기여하였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선교동원의 뿌리는 한국교회 선교운동과 동원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 한국교회의세계선교의 시작은 1907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선교사 파송의 확장 은 한국선교운동의 기초를 만든 5 명의 선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북미주한인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위한 기초 시기가 시작되는 1970 년대에서 본격적으로 북미주에서 한인선교사들을 동원하며 시작된다. 이때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이 한국선교운동의 5 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김의환이 1976 년에 총신대교수직을 사임하고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는 이민을 와서2/3 세계의 학생들을 지도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국제신학교 (ITS)를 설립하고 또한나성한인교회를 개척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운동의 기초를 놓게 된다. (박기호1999:161)[[19]](#footnote-19) 하나님께서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를 진행하시는 과정에 첫 부분은 선교동원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들의 선교동원은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와 분리 될 수 없는 영역으로 함께 있어 왔다. 70 년대 북미주한인교회 근대선교사 파송 역사를 이해함으로 북미주한인 선교동원 역사 안에 나타난 선교동원의 특징과 특성을 고찰을 해본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은 선교적 목회를 하여 본인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를 통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이 세계선교에참여하도록 하였다. 그 목회자들은 김의환, 김광신, 이원상, 임동선, 정상우, 장영춘목사 등 이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한인 선교사들은 1980 년 이후 다양한 위치에서 계속적으로 역활을 하고 있다. 1980 년대 초에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파송한 초임 선교사들이 첫 임기 중에 미주를 방문하여 북미주한인교회들에게 직접접으로 선교를 도전하고 동원하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북미주한인교회의 선교동원의 특징은198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교회들이 생기면서 초기에 교회를 개척한 세계선교의 비전이 있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대하였음을 알 수 있게 된다(2014:미주 한국일보 2 월 1 일 기사). 한인교회 초기에 직접 목회를 하면서 북미주선교동원에 관한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에서 최초로 1 호 선교사로 파송되어 태국으로 간 최찬영선교사는 1992 년 2 월 1 일 홍콩에서 은퇴(1995:362)[[20]](#footnote-20) 후에 미국에 귀국하여 북미주 한인교회 선교동원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교육사역(풀러신학교 선교 대학원 한국학부를 시작)에 참여하여 이민교회 개척과 부흥 시기에 북미주 한인교회들 의 선교 동원에 기여하게 된다.

5. 코비드 19로 인한 세계선교 환경의 변화

우리는 그동안 한세기에 진행된 새로운 유행병들 (SARS, MERS, 인플루엔자 H5N1, 돼지 독감, 에볼라, 지카), 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미 있던 다른 유행병들은 말라리아, 황열병, 홍역, 뎅기열과 같은 오랫동안 알려진 질병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교는 중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한 불확실성과 제한은 앞으로 2-3년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구의 환경은 코비드 19 만이 아니라 기존의 문제들인 극심한 빈곤, 기후 변화의 환경적 영향, 식량과 물의 불안정, 성 폭력, 특히 기독교박해와 선교비자 제한등 선교에 대한 많은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다.  
  
6. 선교동원의 확대된 사역특성의 위험 - 재택선교,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현장사역

동시에 디지털 과학 기술,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터넷상에서 가상공간에서의 대화 연결, 모임, 소통하는 대화의 장들이 더 많이 열려가고 있다. 일반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소위 비대면과 언택트 시대라는 특징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선교의 명령을 대면과 컨택트의 성경적 선교명령이 있지만 지금의 특별한 현상은 직대면과 연결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지역교회들과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것은 비대면과 언택트의 온라인 구조로 선교를 선회하려는 유혹을 조심해야 한다. 비대면과 언택트 선교방법은 임시적인것으로 인정하고 이 방법에 의존하면 안된다. 온라인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은 어느정도 선교의 대면방법과 현장컨택의 준비를 위해서 사용되는것으로 삼아애 한다.

7. 제안과 도전

missio Dei,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교명령에 미주한인교회들은 변화되는 글로발환경에 적응하여 선교사명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전략들을 제한한다.

1. 강소형교회선교운동 –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어려운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공동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 중소형교회의 선교동원을 위한 초교파 네트워크와 연대를 할 것

2. 이민교회에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은퇴성도들을 위해 황금기선교사 훈련학교를 세워 황금기선교사( 평신도전문인선교사)로 훈련하여 선교지 현장에 파송하거나 미주안에서 전문분야 선교사역을 할수 있도록운동을 한다.

3. 교회안에 5가지 선교관련 분야를 강화하여 선교동원구조를 강화 시킨다.- 선교지도력, 선교공감력. 선교동원력, 선교재생산력, 선교재정헌신력

4. 단기선교를 재점화하여 강화시킬것

5. 교회마다 선교지에서 유용하게 사역에 활용할수 있는 생활선교 아이템을 개발하여 성도들이 헌신하게 할것

결론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노년 세대의 선교동원은 이제 매우 중요한 주제가되었고 또한 선교가 가능한 세대이므로 코로나 19 이후의 선교동원에서는 노년 세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선교에 동원할 것을 제안한다. 이민 교회 안에 늘어나는 노인세대는 이민교회 안에 귀중한 영적 자산이며 동시에 선교자원이 된다. 이민 1 세대는 선교동원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세대들임을 볼 수 있다. 건강과 전문성 그리고 교회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해외 선교에도 여러 방법으로 동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의 은퇴연금지급과 건강보험지원등으로 보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황금기선교사는 선교에 참여하는 방식이 현지를 직접 갈 수도 있고 또한 본인의 거주지에서 집을 떠나지 않아도 다양한방법으로 선교에 연결될 수 있다. 노인세대의 선교동원 중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역에 참여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직접 훈련하여 파송을 하고 중소형교회들이 공동으로 소액을헌신하여 모아서 파송하고 본인의 정부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선교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민 1 세대는 고난을 통과한 세대로 강인한 정신력과 믿음이 있는세대이다. 이들을 동원하는 과제는 교회중심의 친교 생활에서 선교 중심의 생활로 바뀔 수있는 인식전환과 선교 도전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실버” 또는“시니어”라는 사회적 호칭이 있지만, 선교적으로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세대로 볼 수있다. 따라서 노인세대를 동원할 때는 이들을 “황금기선교사”라는 호칭으로 자긍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며 동원할 수 있다. 이 노인세대가 선교에 동원이 되면 첫째, 그 교회 안의 노인세대의 친구 네트워크가 선교네트워크 화 될 수 있다. 둘째, 가족이 선교화 될 수 있다. 부모님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경우 자녀들과 가족들은 더욱 진지하게 기도와 선교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본인이 알고 있는 교회 밖의 일반 사회 전문인들 네트워크가 본인의 선교를 후원할 수 있는 선교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 넷째, 교회 안에 단기선교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본 교회 노인세대인 장로, 권사가 선교지의 교회에서 단기선교를 보내는 것이 우선권이 될 수 있다. 이에 여러 중소형교회들이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여 보낼수 있다. 북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에서 노인세대를 동원 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가노인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사회복지 혜택이다. 의료보험과 은퇴 후 받는 연금등이 노인세대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해외에 거주하는 것도 좋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이들은 문화적으로도 이미 다문화 권에서 다인종들의 미국 사회에서 살아왔기에 선교지의문화적응에도 유연한 사람들이다. 또한 국제 언어인 영어도 익숙한 세대이다. 또한 선교에참여하거나 선교지로 파송을 하기 전에 철저한 선교훈련을 잘 받게 함으로현지선교사와의 마찰을 줄일 수 있고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보완을한다면 매우 좋은 선교동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주 한인노인세대 인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늘어나는 현상은 새로운 선교동원 대상이며, 이중에 전문인들이 가능성 이 높은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년 세대를 선교동원하는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노년 세대에 대한 호칭을 “황혼기”에서 “황금기세대”라고 호칭을 하여 노년 세대를 선교에 동원해야한다.

참고도서  
김성욱 2010 현대 평신도 전문인선교(Laymen's Tent-Making Missions Today). 서울: 프라미스 키퍼스  
  
김신숙. 2015 “여성사역자의 방향.”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467-486. 서울: 예영 B&P: 한인세계선교사회(KWMF)회장단.  
  
김옥순. 2010 디아코니아학 입문: 디아코니아 영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서울: 한들출판사.  
  
박기호. 1999 한국교회선교운동사(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원서명: A Two-Thirds World Mission of the Move: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출판부.  
  
방동섭. 2010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오병수. 1997 (82세 老목사가 다시 쓰는) 예수뎐. 서울:두란노.

오상철 외 5인 편저. Pp. 280-291. L.A.: 이민신학연구소.

이수환2009 전문인 선교론(Professional Missiology). 파주: 한국학술정보

이은무. 2009 “다니엘과 이민 선교신학: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이민신학논단(제1집), 창간호.

이현정. 2010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 이론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하용조. 1990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서울: 두란노.

홍기영 2015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197-2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임윤택. 최찬영 1995 최찬영 이야기: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자서전.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루츠, 울리히(Luz, Ulrich) 2002 마태 공동체의 예수이야기(Jesusgeschichte des Matthaeus). 박정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슈미트, 워너 H.(Schmidt, Werner H.) 1989 (역사로 본) 구약신앙(Faith of the Old Testament). 강성열 역. 서울: 나눔사.

윈터, 랄프(Winter, Ralph D.). 2012 비서구 선교운동사(Twenty-Five Unbelievable Years, 1945 to 1969). 임윤택 역. 고양: 예수전도단.

윈터, 랄프(Winter, Ralph D.). 2013 기독교 문명운동사: 세계 기독교 문명사를 보는 거시적 퍼스펙티브스(Foundations of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A Larger Perspective). 임윤택 역. 고양: 예수전도단.  
  
피어슨, 폴(Pierson, Paul E.). 2009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기독교선교운동사(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벤 엔겐, 찰스(Van Engen, Charles) 1999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2014 (지역 교회의 존재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 Metenga, Jay, and Malcolm Gold 2016 Mission in Motion: Speaking Frankly of Mobilization. CA: William Carey Library. [↑](#footnote-ref-1)
2.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임윤택 역. 서울: 두란노 [↑](#footnote-ref-2)
3. (지역 교회의 존재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footnote-ref-3)
4. 구약성경과 선교(Mission in the Old Testament : Israel as a light to the nations).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footnote-ref-4)
5. 비서구 선교운동사(Twenty-Five Unbelievable Years, 1945 to 1969). 임윤택 역. 고양: 예수전도단. [↑](#footnote-ref-5)
6.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기독교선교운동사(Dynamics of Christian Mission : History Through a Missiological Perspective). 임윤택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footnote-ref-6)
7. “여성사역자의 방향.” 한국선교의 반성과 혁신: 한국 선교의 미래를 준비하라.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편저. Pp. 467-486. 서울: 예영 B&P: [↑](#footnote-ref-7)
8. “다니엘과 이민 선교신학: 다니엘서 6장을 중심으로.” 이민신학논단(제1집), 창간호.

   오상철 외 5인 편저. Pp. 280-291. L.A.: 이민신학연구소. [↑](#footnote-ref-8)
9. 슈미트, 워너 H.(Schmidt, Werner H.) 1989 (역사로 본) 구약신앙(Faith of the Old Testament). 강성열 역. 서울: 나눔사. [↑](#footnote-ref-9)
10. 하용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서울: 두란노. [↑](#footnote-ref-10)
11. 홍기용 “선교적 교회론의 관점에서 본 선교.” 선교적 교회론과 한국교회. 한국선교신학회 편저. Pp. 197-23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footnote-ref-11)
12. 마태 공동체의 예수이야기(Jesusgeschichte des Matthaeus). 박정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footnote-ref-12)
13.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footnote-ref-13)
14. (82세 老목사가 다시 쓰는) 예수뎐. 서울:두란노. [↑](#footnote-ref-14)
15. 디아코니아학 입문: 디아코니아 영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서울: 한들출판사. [↑](#footnote-ref-15)
16. 이현정 2010 평신도 전문인 자비량 선교: 이론과 실제. 서울: 쿰란출판사. [↑](#footnote-ref-16)
17. 김성욱 2010 현대 평신도 전문인선교(Laymen's Tent-Making Missions Today). 서울: 프라미스 키퍼스 [↑](#footnote-ref-17)
18. [↑](#footnote-ref-18)
19. 한국교회선교운동사(Missionary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원서명: A Two-Thirds World Mission of the Move: The Missionary Moveme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출판부. [↑](#footnote-ref-19)
20. 최찬영 이야기: 해방 후 최초의 선교사 자서전. 서울: 죠이선교회출판부. [↑](#footnote-ref-20)